

삼바에피스, 바이오시밀러사업 '훨훨'... 누적매출 1조 돌파

연간 최대실적 조기 경신
바이오젠 등서 마일스톤 수령
신제품 판매로 성장 가속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액 1조1403억원, 영업이익 3631억원으로 연간 최대 실적을 조기 경신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23년 연간 실적으로 매출액 1조203억원, 영업이익 2054억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3개 분기만에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초과 달성했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매출액은 올해 1분기 2801억원, 2분기 5299억원, 3분기 3303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분기 381억원, 2분기 2571억원, 3분기 679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연구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옥

개발 성과 달성에 따라 파트너사로부터 수령하는 '마일스톤'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마일스톤은 별도의 비용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동반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상반기에만 파트너사인 바이오젠과 산도스로부터 총 2205억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올해 4월

과 7월에 각각 미국과 유럽에서 스텔라 바이오시밀러 '피즈치바(성분명: 우스테키누말)' 품목허가를 승인받고, 5월에는 이탈리아 바이오시밀러 '오펜비즈(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미국 허가를 획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오펜비즈의 경우, 지난 9월 유럽에서 오펜비즈 품목허가에 대한 긍정 의견을 확보해 올해 안에 최종 허가가 결정되면 추가적인 마일스톤 발생이 예

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신제품 판매로 매출 성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7월 유럽에서 피즈치바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신규 출시했고 오는 2025년 2월 미국 출시도 추진 중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문을 열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초창기 우스테키누말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선두 주자로서 기업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후속 바이오시밀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SB27(성분명: 펨블롤리주맙)' 임상 1상과 3상을 동시 수행하는 '오버랩 전략'을 펼치고,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SB16(성분명: 데노수맙)'을 개발하는 등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실제로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위암, 두경부암 등을 적응증으로 하는 항암제로, 지난 2023년 글로벌 1위 의약품에 이름을 올렸다. 그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250억1100만달러(약 32조5143억원) 수준이다. 물질 특허는 오는 2029년 11월과 2031년 1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만료될 예정이다.

프롤리아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61억6000만달러(약 8조8000억원)를 기록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뿐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국내 바이오 벤처 인투셀과 항체-약물 접합체(ADC) 신약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인투셀은 ADC 전문 기업으로, 올해 2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에서 한국거래소 지정 기관인 SCI 평가정보와 한국생명과학연구원 등에서 각각 A등급을 받아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시멘트업계, 출하량 급감... 초긴축 경영 예고

1~3분기 3222만t... 전년비 13% ↓
전기로 인상 겹치며 업황 악화일로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내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최근 10년 사이 최저치를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전기로 인상까지 겹치며 제조사 전기료를 많이 쓰는 시멘트업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24일 한국시멘트협회가 발표한 '2024년 시멘트 수급전망'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시멘트 출하량(내수)은 3222만 톤(t)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3%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내수 총 출하량은 4400만 t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꼭 10년 전인 2014년 당시 시멘트 내수 출하량이 4371만 t이었다.

특히, 극성수기에 해당하는 3분기에 시멘트 판매량은 두 자릿수 가까이 감소했다. 일부 업체는 내부 부진에 따른 재고 증가로 일부 생산 설비에 대한

<2023~2024년 시멘트 수요 실적·전망 (단위: 만톤)>

/한국시멘트협회

구분	2023년	증감률	2024년	증감률
내수	5,024	1.2%	4,400	-12.4%
수출	208	-21.2%	304	46.2%
총출하	5,232	0.1%	4,704	-10.1%

가동 중단도 검토 중이다.

시멘트 내수 감소는 건설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 주요 건설 관련 선행지표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 방안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면서 건설수주액은 다소 상승했지만, 과거 수준까지 단기간에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더 큰 문제는 내년 수요가 올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라며 "내년 국내 수요가 4200만 t 이하로 떨어질 경우, 내수 출하량은 2014년 출하량 수준을 기록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시멘트 제조원가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전기가 추가 인상되자 이에 따른 수익성 추가 악화도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전날 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했다.

시멘트협회 관계자는 "급격한 출하 감소에 따른 매출 부진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상승과 탄소중립 등 환경 부문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시멘트 업계는 초긴축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김학규 디케이오스텍 대표, 금탑산업훈장

중소기업융합대전

원경연 정원기계 대표 동탑훈장

중소기업간 융합을 통해 창출한 혁신 성과물 등을 공유하는 '2024 중소기업 융합대전'에서 디케이오스텍 김학규 대표가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광역시는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중소기업융합대전'을 열고 금탑훈장 1점, 동탑훈장 1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5점, 국무총리 표창 6점 등 총 15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김대표는 자동차 서브프레임 분야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부품 국산화로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자동차 산업분야 발전에 기여해왔다.

동탑훈장은 자동차용 정밀기어 등 연구개발로 꾸준한 매출 성장과 지역 경

제 발전에 기여한 정원기계 원경연 대표에게 돌아갔다.

행사에선 기업 간 협업 성과물을 비롯해 150여개 기업이 참여, 다양한 제품을 전시했다. 또 협업기업을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지역인재 채용 현장면접도 진행했다.

중진공과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이번 행사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대·중소 동반성장,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능동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토록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전-기아, V2G 등 전동화 신기술 개발 맞손

(양방향 충·방전)

PBV 활용 전력생태계 구축 업무협약

한국전력은 23일 서울 Kia360에서 기아와 함께 'PBV(목적 기반 모빌리티)'를 활용한 미래 전동화 및 전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한전의 직무특성에 최적화된 PBV 모델을 개발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전동화 및 전력 생태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양방향 충·방전(V2G), 전기차 자동 결제 충전(PnC) 등 미래 신기술 개발에 협력하게 된다.

PBV(Platform Beyond Vehicle)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계, 제작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충실하도록 고안된 맞춤형 교통수단을 말한다. V2G(Vehicle-To-Grid)는 전기차 배터리의 남은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공급하는 기술이다.

양사는 한전 부산울산본부에서 PBV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측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빌리티 맞춤형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력신사업 발전에 기



한국전력 이준호 안전&영업배정부사장(왼쪽)과 기아 정원정 국내사업본부장 부사장이 23일 서울 Kia360에서 'PBV를 활용한 미래 전동화 및 전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전

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아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미래 전력 생태계 구축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공정위, 한국파파존스 과징금 14.8억 부과

세척용품 강매 등 불공정 행위 적발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 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주방세제나 손소독제 등 자사가 공급하는 세척용품 구매를 강제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1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파파존스 피자의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 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파파존스피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 거래처를 제한했다.

아울러 파파존스는 2015년 8월 ~ 2022년 4월까지 기간 중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